

3년 내 폐플라스틱 10% 줄이고 재활용률 80%로 높인다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
커피전문점서 '개인컵 추가할인제'
배달앱 '제로식당' 서비스 전역 확대
한강공원, 일회용 배달용기 금지 등

서울시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10% 줄이고 재활용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일상 조성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플라스틱 자원화·순순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478t(현재 2753t)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69%에서 79%로 높인다는 목표다.

먼저 시는 9~11월 서울시내 커피전문점 100여곳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문하면 300원을 할인해주는 '개인 컵 추가 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참여 매장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상품권(15% 할인)을 발행한다.

배달의 민족·요기요·뽕겨요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대화용 그릇에 담아주

는 '제로식당' 서비스는 종전 10개 자치구에서 2026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세제와 음식 등을 대화용기에 담아서 주는 방식으로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제로마켓'도 1000개로 늘린다.

한강공원은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

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올해 잠수교 일대를 시작으로 내년 독섬·반포, 2025년 한강공원 전역으로 제로 플라스틱존이 확대된다.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단독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들 현재 1만3000곳에서 2026년까지 2만개로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대학가 등 재활용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뒤섞여 배출되는 사각지대에 분리배출함, 스마트 회수기 등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땅에 묻히거나 소각돼 버려던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되살리는 순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폐비닐을 연료유나 재생원료로 생산해내는 '도시원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국내 4개 정유화학사(GS칼텍스·HD현

대오일뱅크·LG화학·SK지오센트릭)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연간 8만6000t의 폐비닐을 열분해 원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봉제원단 폐기물'도 고품연료, 섬유원사 등으로 자원화한다. 시는 "하루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만 127t이고, 이 중 60%가 소각·매립된다"며 "2026년까지 자치구·SR센터·기업을 연계해 하루 100t가량의 원단을 섬유패널, 건축자재 등 재활용 자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신기술을 도입해 현대화·자동화한다. 시는 내년 중 하루 최대 230t의 폐기물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은평·강남·강동 선별시설 처리용량을 늘리고, 2026년까지 인공지능(AI) 선별 로봇을 모든 공공 시설에 확대 도입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현 고1 전문대 입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전문대교협 '전문대학입학전형' 확정
전형방법 제한·특별전형 명칭 표준화
모집유보제 유지·정원의 전담학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된다.

이외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그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해 진행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모집유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으로 모집하는 '정원의 전담 학교' 운영이 2025학년도 입시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적용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

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우선,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필수로 반영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문대학도 학생 선발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

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입학 전형방법 간소화 및 '특별전형' 명칭 표준화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전형요소 5개 중에서 전형요소 간 반영 비율을 결합해 수시 4개, 정시 4개 이내로 전형방법 수를 제한한다.

정원내 특별전형은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 자격 등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일반고 ▲특성학교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가지 용어로 전형명칭을 표준화해 전형유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학년도 처음 도입되는 '모집유보제'도 2026학년도 유지된다. 학령인

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영구 감축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감축분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은 정원의 최대 20%까지 모집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정원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정원의 전담학과'도 운영된다. 전문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으로 모집해 별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6학년도 입시에서도 적용된다.

전문대학 입시는 수시모집 2차례, 정시모집은 1차례 운영된다. 2026학년도 1차 수시모집 기간은 2025년 9월8일~9월30일까지, 2차는 2025년 11월7일~11월21일까지다. 정시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6년 1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 ihj@



탄자니아 연수팀 등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시를 방문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벤치마킹 위해 탄자니아 연수팀 등 방문

파주시는 탄자니아 '성 주류화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팀 15명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6일 파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가 추진하는 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탄자니아 연수팀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과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기획 및 실행 등에 관심을 가지고 파주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이날 시를 방문한 연수단은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안전한 파주'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 대해 권문영 여성정책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파주시가족센터,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했다.

아울러 연수단은 파주시 방문 이전부터 요구해 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정책 실행을 위한 협업과 시민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최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성매매 집결지 시민지원단 2차 위촉식을 참여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방문한 주디스 엠마누엘 수연수단 대표는 "파주시가 경기도 성인지 정책 최우수 기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 1위에 선정된 곳이라고 들었다"라며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 수행 과정 등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성신여대 日 교류대학 재학생과 '실시간 동시 수강' 운영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가 9월 시작된 2학기부터 일본 교류대학 재학생과 성신여대생이 '실시간 동시 수강'하는 공동 교과목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올해 일본 학습원여자대학(총장 오모모 도시유키)과 교류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아 양교에 '한일교제 탐구연습'이라는 공동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교 재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정규 수업 운영에 들어갔다.

양교 재학생은 이번 공동 교과목 강의를 온라인으로 '동시 수강'하며 정치, 사회, 문화 등 15주간의 주별 주제와 관련된 뉴스 텍스트를 해석하고 토론을 펼친다.

/이현진 기자

폐교된 '한국국제대학교' 재적생 63% 편입학 완료

전형 응시생 359명 중 347명
인근 대학 16곳으로 특별편입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달 말 폐교된 진주 한국국제대학교에서 편입학 전형에 응시한 학생 359명 중 347명이 인근 대학 16곳으로 편입학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국제대 재적생은 546명으로 약 63%가 편입학 한 셈이다.

한국국제대는 1977년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해 여러 번의 개편을 거쳐 200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했지만, 2018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 극심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달 31일 폐교됐다.

이번 특별편입학은 한국국제대가 폐교되면서 당장 2학기부터 공부할 곳이 없어진 재적생들이 공백 없이 학습을



한국국제대 대학본부.

/한국국제대 홈페이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됐다.

1차 특별편입학에 참여한 일반대는 경남 가야대·경남대·경상국립대·부산장신대·영산대·인제대·창신대·창원대, 부산신라대, 경북 경주대·대구대·대구한인대 등 12곳이다. 전문대학은 경남 김해대·동원과학기술대·마산대·창원문성대 등 4곳이 참여했다. 일반대와 전문대학은 총 1268명의 학생을 모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합격 통지를 받고도 해당대

학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등 1차 특별편입학 미완료자 12명과 당초 2024학년도 진학을 희망한 학생들에 대해 내년 1학기 2차 특별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편입학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인근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짧은 기간임에도 1차 편입학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라며 "이들은 2학기에 편입학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